

민주, MB·국정농단 인사사면에 “내 편 봐주기” 비판 쏟아

광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쏟아져
 정청래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 줘”
 박찬대 “정치 검사를 위한 사면 복권 쇼”
 장경태 “촛불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배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사면·복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광주 현장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MB(이 전 대통령)가 15년형을 감면받고 복권됐다”며 “5개월도 남지 않은 김경수와 옛 바귀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내 편 봐주기. 이 정권은 오래 못 간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다 풀어줄 거면 뭐 하러 잡아 넣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을 최소한의 균형도 없이 징하게 탄압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장호중·이재영 전 검사를 거론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검사 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은 검사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명박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검사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그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 검사와 정치 검사를 위한 사면 복권 쇼”라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라면 다 용서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이를 기반으로 법치를 운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이제는 사면권자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윤 대통령은 자기 부정 종결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제 5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들어서고 있다.

해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주요 공직자 6명이 침에 뒤집어 버렸다. 촛불에 대한 배신, 국민 사면·복권된다”며 “촛불을 들었던 추운 날씨에도 거리를 나섰던 국민들의 염원을 하루아

최이슬기자

민주, 北 무인기 도발尹대응 비판...“안방 여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언급, 국가안보장회의(NSC) 미개최 등을 지적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28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비행하다가 되돌아간 것 같다”며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며 “안보 태세 부실, 기민하지 못하고 무능하던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 하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발언을 지적하고 “병사들 대신 적진을 정찰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전투단은

“尹, 심각성 인식 못해...대오각성”

이미 창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긴다니”라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비상 상황이면 NSC를 열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NG만 연발한다”며 “진돗개도 발령 않고 웬 개 사진만 방출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은 초유의 사태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일성은 전 정권 탓”이라며 “집착 정도가 스톱킹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은 드론 부대를 창설했고, 방위사업청은 안티 드론 사업을 진행했다”며 “조소형 드론 잡는 무기 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고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전력 과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뜬금없이 이미 존재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니”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에선 왜 NSC를 개최 안 했

냐는 질문에 전쟁 중에 토론하란 말이냐며 욕박질됐다”며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한 겸손하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최근 군사 긴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고 말한다. 국민 생명을 불모로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남 탓할 시간에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 각오로 이번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초유의 상황에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지 않고 저녁에 한가하게 관저 만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명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군 통수권자란 자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보”라며 “책임질 생각이 없는데 왜 정권을 잡았나”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 정찰 상황이라 NSC를 안 열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녁에라도 만찬 행사를 할 게 아니라 NSC를 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환기자

尹 “원자력 점점 더 중요해져 방사능 안전 지키며 잘 활용해야”

靑 영빈관서 과거부·원자력안전위 등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탄소중립, 화석연료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원자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 때문에 화석연료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가격이 올

라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잘 활용할 방안에 관해서, 우리 경제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보고와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과학 인재 양성 등 국가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이것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공적인 활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